

어떻게 오픈소스에 기여하는가? 2024

배권한 <kwonhan.bae@python.org>

기여란 무엇인가?

- 기여는 커리어가 아니다.
 - 그렇게 된것은 사람들이 기여를 너무 안하기 때문
 - 기여의 역설
 - 그런데 오픈소스는 너무 많음
- 개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는 효율이 떨어짐, 심지어 보통 자기돈 내면서함
- 왜 해야하는가?
 - 세금내기
 - 내가 불편해서
 - 돌려주기
- 기여는 매우 적은것부터 시작된다.
- 돈도 좋습니다. 1\$ 짜리 PSF 뱃지
- 파준위 활동, 번역 활동 다 좋습니다.
- 중요한것 : 정기적으로, 시스템으로, 넘겨주기, 같이 하기, 일단 해보기! 틀리면 고치기! 연결하기!

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명성과 커리어가 왜 문제인가?

- 남들이 인지하는 명성
- 은 사실 남들이 인지하는 실력
- 취업에 도움은 될수 있으나..
- 장기적으로 실력을 높게 평가 받는데 기대에 맞춰야함
- 커뮤니티 명성으로 취업 -> 실력이 안됨 -> 어 커뮤니티 안되겠네????
 - 무한반복
- 명성으로 커뮤니티를 장악 -> 취업 -> 커뮤니티가 없어짐
 - 이렇게 없어진 커뮤니티가 한가득
- 저런 사람을 발견하면 정리해야함.
- 안그러면 내가 취미로 한건데 괜히 저평가 받음

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명성과 커리어가 왜 문제인가?

- 놔두면 모두가 망하게 됨
-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를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그대로 반영함
- 어떻게 할 것인가?
 - 내가 더 해서 내가 그 명성을 가져간다.
 - 열심히 포스팅한다.
 - 숫자로 비교한다.
 - 유튜브를 해버린다
- 명성 사냥꾼을 발견하면 어떻게든 처리해야함

파이썬 관련 기여의 문제

- 공통된 툴이 없음.
- 대부분 오래된 사람들이라 이것저것 다 씀...
- C, shell, perl, ruby 등이 섞여있을지도..
- 이제는 docker 는 기본으로 써야함

타이틀에 속으면 안됨

- 속으면 안되는것
 - PSF 디렉터 : 그냥 남들보다 돈을 많이 써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음
 - 디렉터, 컨퍼런스 체어 : 한달에 10시간만 봉사하면 보통 달아줌
 - 컨트리뷰터 : 어떤 커밋인가?
 - 한국 최초 XX
 - 실리콘밸리, 구글, 페이스북 어쩌고 (스콥이 다름, 대기업은 매우 일부만 개발가능)
- 어느정도 믿을 만한 것, 그래도 검증이 필요한것
 - 커밋 로그수
 - 최근에 했다.
 - 메인테이너 : 문서와 코드는 다름, 스콥이 매우 다르다. 앱, 시스템과 웹개발은 다름
각자 전문 분야가 다름
 - 자신감이 있다 : 조심해야한다.
 - 확신이 없다 : 믿어도됨

순서를 살펴보자

- 버그 제보, 재현,
- 이슈를 보고 제안
- 문서화 (적어도 좋음), 수정, 추가, 새로만들기!!
- 번역 (양이 많은편)
- 코드수정
- 기능 추가
- CI/CD

버그 제보, 재현

- 잘 돌아가는가?
 - 환경을 바꾸어보자
 - 무한반복
- 설치를 해보자
- 기본 빌드를 돌려보자.
- 기본 테스트를 돌려보자.
- 잘 돌아가는가?
- 예제를 돌려보자
- 예제를 개선해보자.
- 레포트 하는법 : 최대한 자세하게

이슈를 보고 제안

- 내가 할것이 없을까?
- 이슈를 탐색해보자
- 이슈를 제안해보자.
- 매우 큰 프로젝트를 보고 뭐가 있나를 보자

문서화 전에 공부할것...

- 젠장 기여를 하는데 공부를 해야하다니...
- Markdown - 아.. 이거 너무 종류가 많다.. 그래도 github 로 통일
- reStructuredText - <https://docutils.sourceforge.io/rst.html>
 - Python 계열에서는 sphinx
- 그래도 vscode 에 확장이 보통 있다.

문서화

- 레포에 있는 문서를 잘 찾아보자.
- 오타 수정
- **README** 수정해서 좀 더 이쁘게
 - <https://github.com/line/centraldogma-python/pull/50>

문서화 번역

- 이해를 쉽게 하겠다고 mim같은걸 쓰면 안됨
- Code of Conduct
- Git 로그가 남기 때문에 누군지 들킵니다.
- 로고같은걸 숨길려고 노력해도 이걸 기록에 다 남습니다.
-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기여를 하는게 좋습니다.
- ChatGPT 써도됨
- 그런데 다시 읽어봐야함
- 문맥에 맞아야하는데 쉽지 않음

번역

- 번역 프로젝트는 의외로 많다.
- 그리고 의외로 자주 죽는다.
- 정말 아무도 안한다.
- 오해를 얻기도 쉽다. (광고를 다는 경우)
- 명성을 얻기도 쉽다. (오픈소스 전문가로 정부기관 자문 가능! 기여가 적다는게 아니다.)
- 한글번역팀에게 연락하기
- 연락이 안되면 내가 가져오기
- 용어집이 중요하다.
- 가끔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. 합의가 안된용어, 한글화된 용어
- 번역 시스템에 적응하기
 - <https://github.com/cpprhtn/pypi-Korean-Translations>

연락처를 찾아서 헤매기

- Discord 가 github 의 리드미에 링크로 연동되어있으면 만점!
- Github issue
- 메일링 리스트
- IRC 나 이메일..

CI/CD

- Github action 수정 해주기
- Python version 바꿔주기
- Github action testing 내 계정
- 내 계정 끝나고 오리진으로 보내기
- Act 로 테스트 해보기 (저도 잘 모름)
- CI/CD 문서화하기
- Centraldogma-python 에 내가 기여한 예제
 - <https://github.com/line/centraldogma-python/pull/53>
 - <https://github.com/line/centraldogma-python/pull/49>

내가 최근에 한 기여 설명

- Mailman
- centraldogma-python

어디에 기여를 해야하나?

- CoC 확인 / 어디까지가 **Scope** 인가?
- 실력주의 오픈소스는 제외
- 답변에 독성이 있다면 제외
- 어떤 커뮤니티가 좋은가는 개인마다 다름
- 기여자가 많은곳
 - 내가 기여를 적게 해도 된다.
 - 한글 집어넣기
 - 한글 튜토리얼
- 기여자가 적은곳
 - 내가 기여를 많이 할수 있다.
 - Python 초창기, rust 초창기, 그리고 Python freethread

써드파티 플러그인부터 시작해보자.

- django 의 경우 써드파티가 매우 많음
 - Django 의 코드베이스가 너무 크고 scope 이 크고 기능도 많음
- Pytest 도 마찬가지
- [cometkim 님의 케이스](#)

자세

-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100가지 싫은 것을 해봐야한다.
- 오픈소스 기여를 함으로서 나는
 - 인간으로서 성장
 - 영어가 성장
 - 개발실력이 성장
 - 소프트웨어 PM 실력이 성장
- 옆 사람이 기여에 실패 했다면
 - 실패한 것을 같이 보고 배운다.
 - 같이 다시 해본다.
 - 언젠가는 된다.
- 옆 사람이 뭔가를 기여했다면
 - 박수를 쳐준다
 - 나도 배운다.

자세

- 인내심가지기
 - 오픈소스는 다 자원봉사자가 한다.
 - 코드리뷰를 해줄 사람도 자원봉사자임
 - 내 코드가 몇년씩 리뷰를 못받다가 어느 순간 머지되거나 누가 훑쳐갈수도 있음
 - **Reject/Close** 혹은 내가 너무 집요하면 ...
- 이것저것 영업하고 이것저것 보장하라!
 - 그래서 영업 + 자원봉사를 잘 끌어오는것도 기여임
 - 내가 커미터가 아니어도 리뷰해도 됨
 - 내가 맘대로 문서를 보내도, 리뷰어를 설득하면 됨
 - 이거 봐봐 이거를 붙이면 너가 일을 적게 해도 되
 - 이슈를 만들고 라벨링을 만드는거 이것저것 대신 해줘도 됨
- 모든것은 사람임

스프린트 참가하기

- 스프린트 찾기
 - 전 세계를 돌아서..
 - <https://us.pycon.org/2024/events/dev-sprints/>
 - 코어 개발자에게 메일을 보내보기
- 스프린트 참가하기
- 스프린트 선정 기준
 - 나의 욕구와 욕망

스프린트 운영하기

- 프로젝트의 개괄을 설명하는 문서
 - 여러번 여러명에게 테스트 해서 모두가 이해하게 쉽도록 쓰는것도 기여
- 이슈를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다.
- 보통 이렇게 진행
 - 미리 공부할 문서를 준다.
 - 설명을 개괄적으로 한다.
 - 할일을 나눠준다.
 - 설치를 시켜본다.
 - 이슈를 나눠준다.
 - PR 이 오면 바로 앞에서 리뷰 및 수정
 - 어렵다고 하면 바로 이슈를 나눠주기
- 기여를 하면.. 박수 + SNS 언급, 블로그에 써주기 (<https://djangonaut.space/>)

발표하기

- 발표 주제 찾기
 - 공부를 하기 위해서
 - 취미로
- 발표 재활용하기
- 영어 발표시도하기
- Call For Proposal
- Travel Grant - 기대하면 안되지만..
- 사실 대부분 완벽한 자료말고 목차로 발표가능
- CoC 에 대해서 알아보기 - 한국은 어쩔수가 없었음
- 스피커 모임, 운영진 모임 참가 꼭...
- 휴가를 많이 내야한다... ㅠㅠ / 다른 지역에 가면 지역

Q&A